

그린뉴딜·미래에너지 신기술 홍보 전시회 개막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SWEET 2021' DJ센터서 개최 24개국 245개 기업 550부스 운영...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SWEET 2021' (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가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등 22개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에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KOTRA),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0일까지 3일간 해상풍력, 수상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그린뉴딜을 선도할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홍보하고, 신제품을 전시 판매한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한전KPS 등 에너지 공기업과 유니슨, 비에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대표 기업을 비롯한 245개사가 참여해 550개 부스를 운영한다.

한국전력공사는 홍보관 참가는 물론 협력업체와 에너지밸리 협약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전력동반성장관'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6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관'을 지원한다.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 동반성장관'에 참가해 천연가스 등 국내 가스분야의 우수 기술들을 전시한다.

광주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혁신성장투어'도 동시 개최된다. 동반위는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혁신성장투어'를 개최하고,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양 기관은 광

주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혁신성장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며 동반성장 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이날 혁신성장투어의 부대행사로 개최한 혁신기술 구매상담회에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86개 기업이 수요처로 참여해 200여개의 중소기업과 1대1 현장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 인도, 이집트, 멕시코 등 24개국이 참가하는 해외수출상담회도 열리는데, 코트라 공동주관으로 전시기간을 포함해 2주간 화상으로 확장 개최된다. 수출 희망기업 대상 1대1 수출지원 컨설팅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한국태양광발전학회가 주최하는 글로벌태양광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저명한 태양광 석학이 대거 참가해 정보를 교류하고, 전남풍력산업협회·전남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전남풍력산업 육성 포럼'에서는 국내외 해상풍력 현황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이 밖에도 한국전기연구원의 '에너지 전환 기업 기술 세미나', 한국광기술원의 '인공지능 연계 에너지 기술 포럼',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한국전기설비규정 설계프로그램 사용법 및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진단기술 세미나' 등 전문 세미나도 행사기간동안 진행된다.

이용섭 시장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이번 전시회는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정보 공유로 광주시가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SWEET 2021' 이 개막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등 개막식 참석자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광주서 실무 수습 가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광주 시에서도 실무 수습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법무부로부터 법률 사무 종사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법률 사무 종사기관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단독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구성원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 사무 종사 기관에서 실무를 익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개업과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 법률 사무 종사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5년 이상 경력 변호사가 1명 이상 재직해야 하며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법률 사무 종사 변호사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도 1명 이상 뒤야 하는 등 요건도 갖춰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올 여름 휴가는 안전한 전남 해수욕장에서

오늘부터 54곳 순차 개장 12곳 사전예약제 운영

9일부터 고흥 남열, 장흥 수문, 해남 송호, 진도 금갑 등을 시작으로 전남의 안전 해수욕장 54곳이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전남도는 전남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환자 발생은 가장 적은데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도 사전예약제로 시행하는 안심 해수욕장 12개를 운영해 해수욕장 밀집도와 혼잡도를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용객 안전을 도모하고,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할 방침이다. 안심 예

약제 해수욕장은 목포 외달도, 여수 웅천, 고흥 풍류·익금, 보성 울포, 장흥 수문, 해남 송호, 영광 가마미·송이도, 완도 신지명사십리, 진도 가계, 신안 백길 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이용자가 해양수산부 '바다여행' (www.seantour.kr)이나 도,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날짜, 시간대를 지정 예약해 방문토록 하는 제도다. 수용 가능한 인원 범위에서 현장 접수도 할 수 있다. 예약자는 예약된 일시에 주 출입구로 입장해 발열 체크, 손목 밴드 착용 후 지정된 구역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다.

완도 신지명사십리 등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체온 스티커를 제공하고 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고열변호를 부여한 안심콜을 운영해 이용객 출입 편의를 제공한다.

또 주변 민박, 카페, 식당 등에 대해서도 영업

주, 번영회와 협조해 발열체크 후 손목밴드 착용 자판 입장을 유도하고, 콘도 등 대형숙박 업소는 등록부 작성 등을 통해 이용객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42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발열체크와 손목밴드 착용 등 예약제에 준하는 방역체제로 운영한다.

시·군별로 방역인력 채용, 방역물품 준비, 샤워장과 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주기적 방역 등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세우 추진할 예정이다. 최정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시·군과 함께 해수욕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해수욕장 이용객께서도 물놀이 안전수칙과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잘 지키면서 전남에서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하계 휴가를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블록체인 인재 양성

대학ICT연구센터지원사업

광주과학기술원 선정

광주시가 블록체인 혁신 인재 양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한 '2021년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블록체인 분야에 선정돼 올해부터 8년간 국비 6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8일 밝혔다.

사업 주요 내용은 영지식 센싱(Zero-Knowledge Sensing) 탈중앙 고성능 분산원장 기술개발, 엣지컴퓨팅(Edge Computing)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 기술,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ty)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증 및 보안 기술 개발이다.

영지식 센싱은 음성, 전파, 시각정보 등의 실물 세상 신호를 물리적 고유성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데이터화하는 신기술이다.

인재양성 프로그램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소 및 AI대학원,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스위스아시아크립토크로어인스(SACA), ㈜시티랩스, ㈜셀에스웨어, 퓨처센스, 한국ICT융합협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혁신관트 등 다양한 산학연 소속 전문가가 자문협력으로 참여한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국제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AI·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암호학, 보안 등 여러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시민과 침수피해 예방

'하수도 유입구 시민관리제'

광주시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하수도 유입구 관리제를 시행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와 자치구 하수 관계자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집중호우 취약지역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수도 유입구 시민 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앞으로 자기 집, 상가 앞 하수도 유입구 쓰레기 치우기 등에 동참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자치구 침수예방 관련 추진 상황과 침수피해지역 침수예방대책 등도 중점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자율적 참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하수도 유입구 시민 관리제'를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홍보물 등을 활용한 대 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예금 한시모집

특판시기 : 2021. 7. 5 ~ 7. 23 (3주), 한도소진시 판매 종료

유니온 정기예탁금 12개월 연 2.06%

(세전 / 만기해지)

① 신한ON뱅크 어플 다운로드 후 조합원 가입 ② 상품을 → 유니온정기예탁금 ③ 가입신청

파워 정기예탁금 18개월 연 2.0%

(세전 / 만기해지)

출자금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파란적금 36개월 2.0%

(은행권 전용상품) 세전 / 만기해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한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